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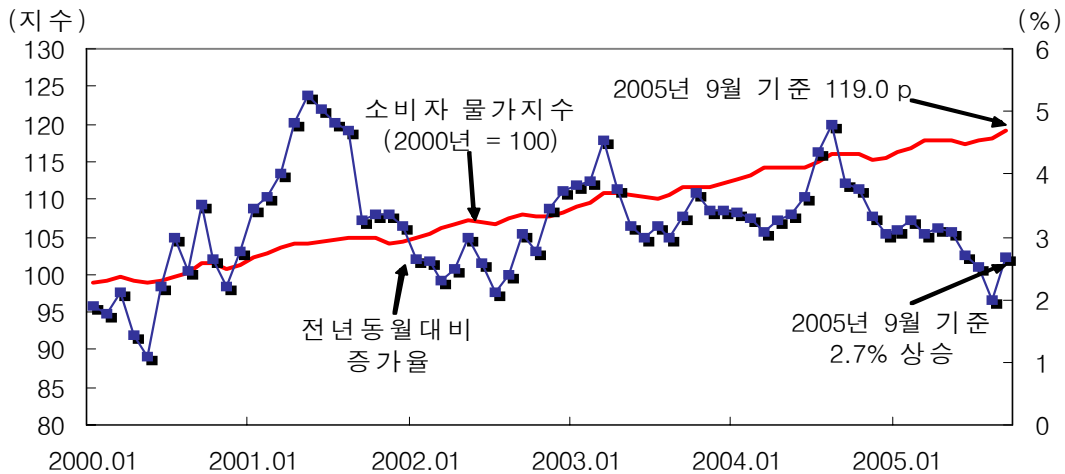
□ 위장된 저물가 현상

1. 물가 움직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5년 6월 이후 9월까지 4개월 연속 2%대의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05년 9월 119.0p로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하여 전월(8월) 2.0% 상승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컸으나 상승률이 여전히 2%대에 머무르고 있음

<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및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



자료 : 통계청.

○ 두바이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는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는 여건에서도 소비자 물가가 2% 상승에 머무르고 있는 주된 이유는 원화가치 상승에 의한 수입물가 상승압력의 흡수, 중국 저가제품 유입 증대, 내수 부진 때문임

- 환율 효과 : 환율 절상으로 수입 물가지수(원화표시)가 하락하여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상승폭이 제한되었음

- 2000년 이후 환율 절상폭이 컸던 세 시기의 수입 물가지수(원화 기준, 달러 기준)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를 보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지수 안정에 크게 기여
- 원/달러 환율이 13.1% 절상된 2004년 5월 ~ 2005년 5월 사이에 달러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4.3% 상승했으나, 원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6.4% 하락
- 이와 비슷한 현상은 2002년 3월 ~ 7월, 2003년 3월 ~ 8월에도 발생

- 원화 절상으로 인한 원화표시 수입 물가지수의 하락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압력을 상쇄하는 효과로 작용

< 원화 절상기의 물가지수 움직임 >

기간		2002.3 ~ 2002.7	2003.3 ~ 2003.9	2004.5 ~ 2005.5
원/달러 환율		10.4% 절상 1,325.9 → 1,188	8.3% 절상 1,254.6 → 1,150.1	13.1% 절상 1,160.1 → 1,007.7
수입 물가지수	달러 기준	4.1% 상승 85.76 → 89.24	2.1% 하락 94.55 → 92.56	14.3% 상승 106.05 → 121.24
	원화 기준	6.8% 하락 100.36 → 93.58	7.5% 하락 103.21 → 95.50	6.4% 하락 110.45 → 107.52
소비자 물가지수		0.6% 상승 106.1 → 106.7	0.6% 상승 110.9 → 111.6	3.1% 상승 114.2 → 117.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원/달러 환율은 종가기준 말일 자료.

- 중국 저가 제품 대규모 유입 : 톤당 가격이 낮은 중국 제품의 수입 비중이 늘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상쇄
 -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중 중국 수입품의 비중은 2000년 8%에서 2005년 1~8월 현재 15%로 급증
 - 특히 소비자 물가와 관련이 높은 경공업 제품의 경우 2005년 1~8월 현재 수입액의 31%를 차지
 - 반면 우리나라 10대 수입 대상국¹⁾에서 중국 제품의 톤당 가격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낮은 637달러에 불과

< 주요 수입대상국 수입품의 톤당 가격 >

(단위 : 달러)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2000년	톤당 금액	2,430	290	1,505	3,673	5,418	232	648
	수입 비중	20%(1위)	8%(3위)	18%(2위)	3%(10위)	3%(9위)	3%(6위)	3%(7위)
2005년	톤당 금액	2,275	637	1,819	10,356	4,554	257	638
	수입 비중	19%(1위)	15%(2위)	12%(3위)	4%(5위)	3%(8위)	3%(9위)	2%(10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1) 2005년은 1~8월 까지 누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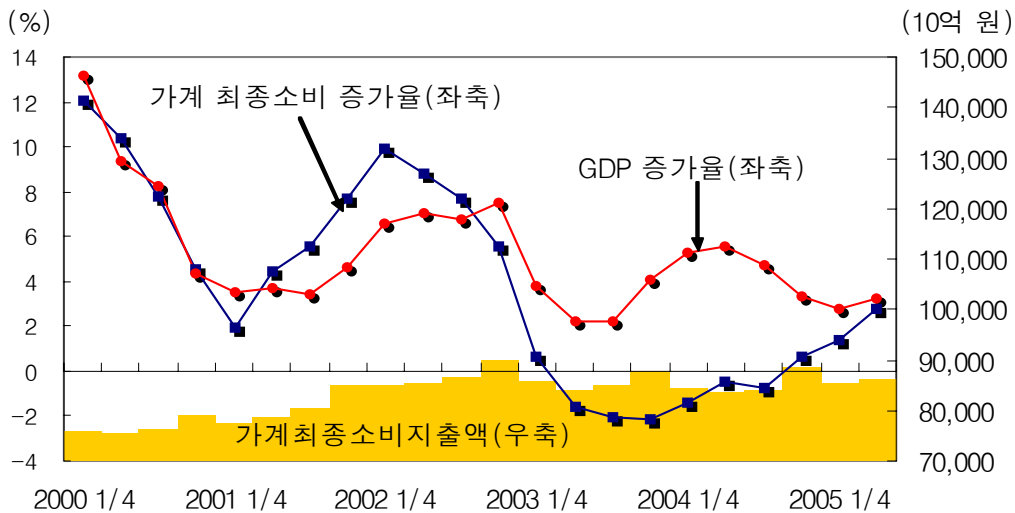
2) 톤당 금액은 명목 기준

3) 수입비중은 금액기준.

1) 2005년 1~8월간 우리나라 10대 수입대상국은 일본,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호주,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이며, 이 글에서는 천연자원 수입비중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호주를 제외하였음.

- 소비 부진 : 가계부문 최종 소비지출액 증가율이 2002년 4/4분기 이후 2005년 2/4분기 까지 11분기 연속 GDP 증가율을 하회
 - 특히 2003년 2/4분기부터 2004년 3/4분기까지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음
 - 2004년 4/4분기부터 가계 최종소비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났으나 액수로 보면 2년 반 전인 2002년 4/4분기의 89.7조원 수준(2000년 가격 기준)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가계 최종소비액과 GDP 증가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2000년 가격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p대 물가상승률, 과연 낮은 수준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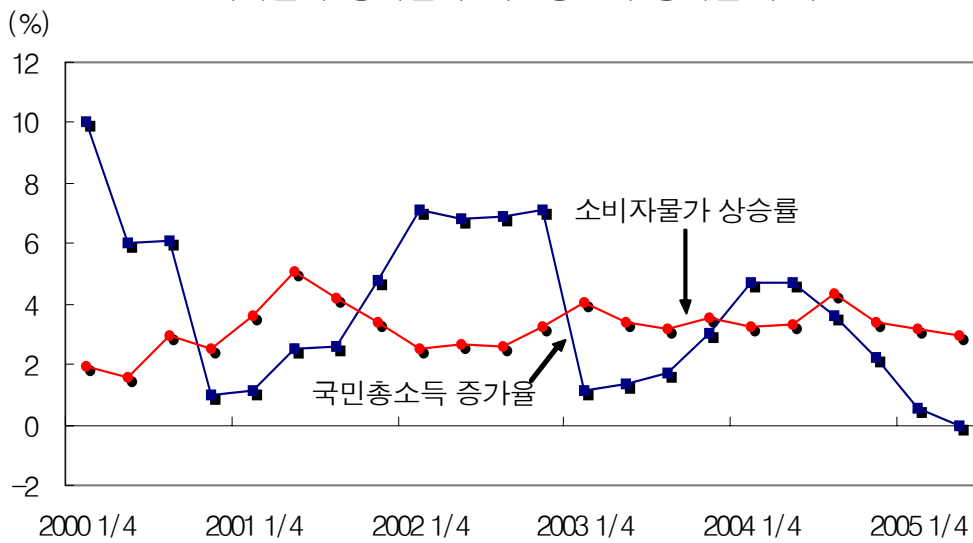
○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물가상승률) 2004년 3/4 이후 4분기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민총소득(GNI : Gross National Income)²⁾ 증가율을 초과

- 2000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민총소득 증가율을 넘어선 총 세 번의 기간 중 차이가 가장 크게 확대된 상태임
 - 2004년 3/4분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민총소득 증가율과의 차이는 4분기 연속 벌어져서 2005년 2/4분기에 3%p까지 확대

2) GNI란 생산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소득지표로, 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손익과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한 것임. 이상 한국은행,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인용.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하락하여 2005년 2/4분기에 3%까지 떨어졌으나 교역조건 악화로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2005년 2/4분기에 0%에 그쳤기 때문(이상 전년 동기 대비)
- 소득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것은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함

< 소비자물가 증가율과 국민총소득 증가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2000년 가격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00년 이후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국민총소득 증가율을 초과한 기간 >

(단위 : %, %p)

	2000 4/4 ~ 2001 3/4				2003 1/4 ~ 2003 4/4				2004 3/4 ~ 2005 2/4			
	2000 4/4	2001 1/4	2001 2/4	2001 3/4	2003 1/4	2003 2/4	2003 3/4	2003 4/4	2004 3/4	2004 4/4	2005 1/4	2005 2/4
소비자물가 상승률 (A)	2.5	3.6	5.0	4.2	4.1	3.4	3.2	3.5	4.3	3.4	3.2	3.0
국민총소득 증가율 (B)	1.0	1.1	2.5	2.6	1.2	1.4	1.8	3.1	3.6	2.3	0.5	0.0
차이 (A - B)	1.5	2.5	2.5	1.6	2.9	2.0	1.4	0.5	0.7	1.2	2.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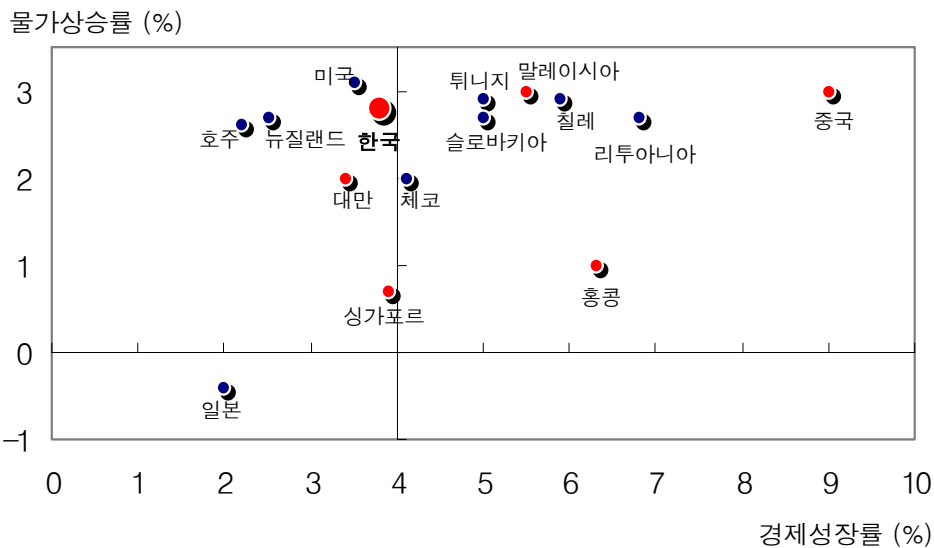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2000년 가격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외국 물가수준과 비교)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물가상승률은 낮은 편이 아님

- IMF 전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5년에 경제성장률 3.8%, 물가상승률 2.8%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반면 물가상승률이 2.8%에 근접한 다른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대체적으로 4%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아시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는 물가상승률 3%-경제성장률 5.5%, 싱가포르의 물가상승률 0.7%-경제성장률 3.9%, 중국은 물가상승률 3%-경제성장률 9% 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보다 물가수준이 오히려 안정될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과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비교 >



자료 : IMF
 주 : IMF의 2005년 예상치.

○ (체감물가 강세 지속) 물가가 유류의 가격변동에 여전히 큰 영향을 받으면서 체감물가와 지표물가간의 괴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생활 물가지수는 2005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2.8%에서 9월 3.8%로 상승폭이 커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의 차이도 0.9%p에서 1.1%p로 다시 확대되었음
- 9월 들어 휘발유와 등유 가격의 인상률이 각각 전월 대비 3.8%, 3.0%로 상승하면서 생활물가지수 상승을 주도

- 생활 물가지수 상승에 대한 휘발유와 등유의 기여도는 구성 품목 중 전월 대비 1위와 5위, 전년 동월 대비 1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어 생활물가가 유류의 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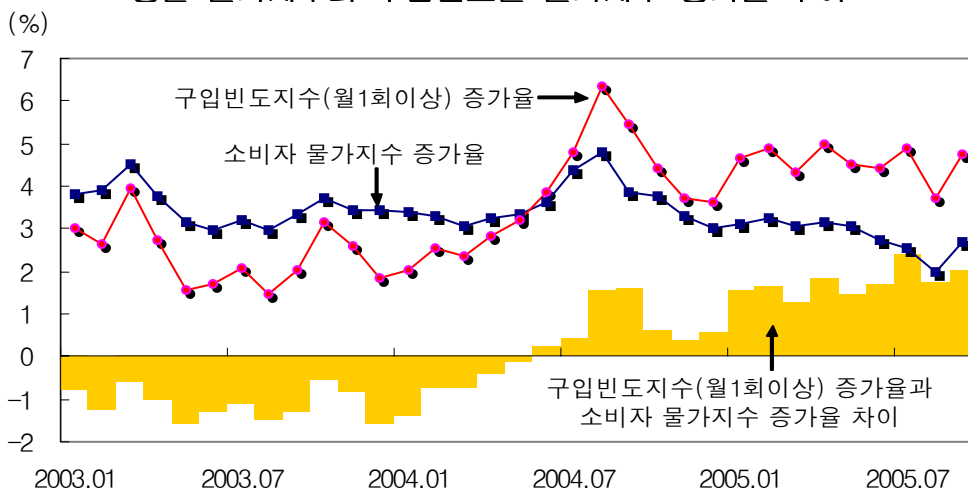
<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품목 1~5위 >

주요품목	전월 대비			주요품목	전년 동월 대비		
	가중치 (%)	상승률 (%)	기여도 (%p)		가중치 (%)	상승률 (%)	기여도 (%p)
휘발유	7.9	3.8	0.3	휘발유	7.9	10.1	0.8
배추	0.5	47.5	0.2	담배(국산)	1.7	27.8	0.5
시금치	0.1	132.6	0.2	등유	2.4	15.7	0.4
무	0.3	29.3	0.1	도시가스	3.6	5.2	0.2
등유	2.4	3.0	0.1	사과	0.6	33.3	0.2

주 : 1) 2005년 9월 기준
 2) 순서는 생활물가지수 상승에 대한 기여도 순.

- 지표 성격상 체감물가에 가장 근접한 구입빈도별지수(월 1회 이상 구입품목 기준)도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과의 차이가 2.1%p로 확대
 - 구입빈도별지수(월 1회 이상 구입품목으로 구성) 증가율은 2004년 6월 이후 16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
 - 두 지표는 2005년 7월 2.4%p까지 벌어져 처음으로 2%p를 넘어섰으며 2005년 9월 다시 2.1%p로 확대되어 체감물가와 지표물가간의 괴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생활 물가지수와 구입빈도별 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1) 구입빈도별 물가지수는 월 1회 이상 구입한 품목으로 구성
 2)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임.

3.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2%대 상승률이라는 절대적 수치로 단순히 해석하기가 힘든 상황임
 - 비용 상승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한국 경제의 역량보다는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때 대외 여건이 변할 경우 물가 상승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함
 - 유가 급등과 동시에 이루어진 원화 가치의 절상, 중국 저가 제품의 대량 유입 등 외적인 요인들이 현재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하지만 미국의 쌍둥이 적자로 인한 달러화 약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 달러화가 강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미 달러의 약세가 지속될 경우 산유국이 결제 통화를 바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향후 환율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거나 더 이상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임
 - 이에 더해 중국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중국 수입 제품의 가격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고, 위안화의 추가적인 평가절상 가능성이 높아 중국 저가제품에 의한 중국 효과는 장기간 지속되지 못할 것임
 -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소비자물가가 더 빨리 상승하고 있어 실질 구매력은 계속 감소하는 상황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4년 3/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국민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2005년 2/4분기에 3.0%p까지 벌어져 2000년 이후 그 차이가 가장 크게 확대되었음
 - 고유가의 장기화로 체감물가가 유류가격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편, 체감물가와 지표물가 사이에 괴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물가가 경제상황을 설명해 주는 변수가 아니라 오히려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음
 - 경제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시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 아님
 -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의 주요 경쟁 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대응 방안) 체감물가에 근접한 보조지표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의 착시현상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인 비용 절감 방안 마련하는 한편 지식·문화 산업 육성으로 고유가와 같은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배양해 나가야 함
 - 보조지표 개발 및 활용 : 체감물가에 보다 근접한 새로운 지수를 개발하는 한편 물가관리시 생활물가지수나 구입빈도별지수 등 체감물가와 연관성이 높은 보조지표를 적극 활용해야 함
 - 현재 물가관리의 기준 지표인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 품목에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것으로, 체감물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경제의 착시현상을 유발
 - 비용 절감책 마련 : 비용견인(Cost Push) 물가상승 성격이 강하므로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중·장기적으로 비용 요인을 줄이고 효율성 제고해 나가야 함
 - 생산성 제고 : 한국의 시간당 생산성은 미국의 40%에 불과하며,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제조업 부문의 절반수준이어서 지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 절실³⁾
 - 에너지 효율성 제고 :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석유소비 효율은 GDP 1억 달러당 하루 335배럴로 OECD 평균 수준인 149배럴의 두 배가 넘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의 176배럴을 크게 상회⁴⁾
 - 문화·지식기반 산업 육성 : 비용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의존도가 낮으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육성책 필요함
 -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비중은 2002년부터 국내총생산의 50%를 넘어서기 시작했으나 문화콘텐츠 개발이나 컨설팅 등 축적된 지식을 상품화하는 능력은 시작 단계에 불과

이상우 선임연구원(3669-4014, leesw@hri.co.kr)

3)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2005, 2005.10.5

4) 대한석유회.